

# 현대중국어 ‘V+个+A’의 구문의미 연구

\* · 기나현

## 目 录

1. 서론
2. V+个+A에서 ‘个’의 기능
3. ‘V+个+A’의 구문의미
4. 보어 체계에서의 ‘V+个+A’ 위상
5. 결론

##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V+个+A’ 구문이 연구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문이 양태보어 ‘V+得+A’와 구문의미가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병존하기 때문이다.

- 예1) a. 吃得很饱。(배부르게 먹다.)  
b. 吃个饱。(배부르게 먹다.)

예1)의 a, b와 같이 맥락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V+得+A’와 ‘V+个+A’ 간 차이를 명확하게 논하기 힘들 뿐 아니라 심지어 교체가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는 두 구문의미의 차이를 지금까지 명료하게 구분짓지 못하기에 발생한 것이며,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하나의 구문의미를 표현하는 두

\* 烏山大學校 觀光系列 助教授, 韓國外大 中國語通譯學科 講師

개의 변이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래 예2), 예3)과 같이 특정한 맥락이 제공된 경우에는 두 구문 간 호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2) a. 四个月的联赛, 人们力图把中国篮球看个清楚明白。  
(4개월 동안의 리그를 통해 사람들은 중국 농구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려고 할 것이다.)

a'. ? 四个月的联赛, 人们力图把中国篮球看得清楚明白。

예3) a. 若是个高手, 那么, 对于你所运用的种种策略或小动作, 必定早已看得清楚明白。  
(만약에 고수라면 네가 부리는 각종 계책이나 장난질을 분명 이미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a'. ? 若是个高手, 那么, 对于你所运用的种种策略或小动作, 必定早已看个清楚明白。

(龙景科:2010)

본고는 두 구문이 출현 가능한 맥락이 서로 다르며, 때문에 두 구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화용적 기능이 다르다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법기제는 ‘구문문법’이다. 구문문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문을 단어와 같이 하나의 기호 층위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단어가 고유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구문도 각각의 독립적인 구문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구문의미는 구문에 사용되는 어휘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언어상 제한 규칙’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수’의 기능에 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의 문법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V+수+A’라는 구문을 형성하는데 ‘수’는 유일한 기능어이며, 구문을 이루는 기능어들은 바로 구문의미의 틀을 결정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V+수+A’ 구문의 구문의미를 모색하는 작업에서 ‘수’는 유일무이한 단서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능을 갖는 ‘수’를 중

심으로 구현된 ‘V+수+A’의 구문의미와 그 구문의미를 기준으로 구문에 사용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 간의 선택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끝으로 ‘V+수+A’가 갖는 정도 표현과 상적인 의미, [±의도성]을 기준으로 다른 보어 구문과의 상관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보어 체계에서 ‘V+수+A’ 구문이 갖는 위상을 설정해보고자 한다.<sup>1)</sup>

## 2. V+수+A에서 ‘수’의 기능

‘V+수+A’에 관한 연구는 ‘V+수+A’가 갖는 구문의미가 아닌 ‘수’의 기능 자체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관련 기존연구는 여전히 ‘양사’로 보고 있으며, 이 양사 ‘수’가 ‘품사 전이’를 일으키는 표지이고, 뒤에 쓰인 형용사가 ‘명사’로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수’는 더 이상 개체를 세는 ‘양사’가 아니며 ‘사건을 세는 기능’을 담당하는 ‘명사화 품사 전이 표지’이자 ‘구조조사’로 보았다. 朱德熙(1982:121)는 ‘수’를 양사로 보고, 양사 뒤에 오는 형용사 성분을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목적어(程度宾语)’라고 하였다.<sup>2)</sup>

예4) 说个明白。(분명하게 말해라!/분명하게 말하자면)

1) 본고는 ‘V+수+A’를 다른 보어와 대조할 때 정도보어(V+得+很)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내적 대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구문이 하나의 명제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V+수+A’와 정도보어는 동일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我们都把碗里的酒喝个痛快。

(우리는 모두 그릇의 술을 통쾌하게 마셨다./우리는 모두 그릇의 술을 통쾌하게 마시자!)

위와 같이 ‘V+수+A’로 표현되는 명제의미를 정도보어로는 표현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도보어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赵元任(1979), 邵敬敏(1984) 등도 ‘수’를 양사로 보았다.

玩几个痛快。(화끈하게 놀아라!/ 화끈하게 놀자!)

즉, 예4)처럼 양사 ‘수’ 뒤에 사용된 형용사는 체언성 구조로 바뀐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명사(구)화(名物化)’와 관련된 이론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구)화’는 일종의 ‘품사 전이 현상’에 관한 견해로, 특정한 환경에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그 기능이 변어진다는 현상으로 관련 언어 실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다품사어(兼类词)’와 상충되는 개념이며, 다품사어의 품사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宋玉柱(1993), 石毓智·李讷(1998) 등은 조사로 보고 있다. 특히 张谊生(2003)은 양사 ‘수’가 문법화를 거쳐 조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수’가 명사에서 차용되어 양사가 된 후 상고시대부터 사물이나 사람을 세는 양사로 쓰였다고 하면서, 그 뒤 화용적 필요에 의해 ‘수’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이 용언성 구까지 확대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사(구)화’나 ‘다품사어’ 중 어느 하나의 권위성을 증명하고자 하진 않겠다. 다만,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가지 관점 모두 구조주의 이론에서 취했던 ‘고전적 범주론’의 관점에서 품사를 분류하려고 한 점이다. ‘고전적 범주이론’을 기준으로 한 품사 분류의 문제점은 중국어 품사체계가 체계 간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명사(구)화’라는 이론 역시 품사 경계의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도출된 이론이다. 품사의 분류는 인지문법에서 제시된 ‘원형범주 이론’을 도입해야 하며, 품사는 전형적인 구성원과 비전형적인 구성원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비로소 설득력 있는 분류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고전 범주론에서 제시한 형용사의 분류 기준은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화된 기준에 따르면 아래 예문에 쓰인 지명은 ‘형용사’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예5) 他长得很中国。(그는 중국틱하게 생겼다.)

위 예문의 경우 정도부사 ‘很’의 뒤에 위치한다고 해서 ‘中国’을 형용사로 볼 수는 없다. 차라리 ‘中国’과 같이 어휘가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를 비전형적 명사로 분류하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분류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가 양사에서 조사로 문법화되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시대별 고찰을 통한 새로운 기능의 생성 시기만을 제시해줄 뿐 문법화가 진행된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법화는 ‘내용어에서 기능어로의 변환’과 ‘새로운 기능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张谊生(2003)은 ‘수’가 내용어에서 ‘개체 수량을 나타내는 양사’로, 또한 ‘양사에서 구조조사’로 변이된 실례와 출현 시기를 밝혔지만 내용어에서 수량 단위도량사로 변환된 원인이나 기능 확장된 요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양사에서 보어 구문을 형성하는 구조조사로의 기능 확장이 가능하게 된 원인을 인지적 측면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 확장을 주관하는 주요 기제는 바로 ‘은유기제(隐喻机制, metaphor)’<sup>3)</sup>이다. ‘은유’는 ‘해석의 기제’이다. ‘사랑은 전쟁이다’라는 은유 표현은 사랑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시키기 위해 보다 인지적으로 이해가 쉬운 개념인 전쟁이라는 근원영역을 사용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청자나 독자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양사 ‘수’는 명사를 세는 단위이며, ‘경계가 뚜렷한 개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사 ‘수’의 기능적 특징이 ‘V+수+A’ 구문에서 형용사를 경계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체의 윤곽화’가 형용사에 내재된 ‘정도나 양’을 윤곽화시키는 ‘정도의 윤곽화’로 ‘유추(类推, inference)’<sup>4)</sup>라는 인지적 기제에 의해 사용되게 된 것이다.

3) 张谊生(2003)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도 기능 확대는 은유기제(metaphor)와 유추기제(inference)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기제들이 ‘수’의 문법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는 원형범주 이론에서 볼 때 ‘수’가 전형적인 의미인 양사에서 문법화 과정을 통해 정도를 나타내는 조사로 확장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sup>5)</sup> 구조조사 ‘수 + A’ 구문에서 형용사의 정도를 경계화시킨다고 본다. 이렇게 설정된 ‘V+수+A’ 구문의 의미가 ‘V’와 ‘A’의 구문 사용 여부를 선택 제한한다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3. ‘V+수+A’의 구문의미

구문문법에서 말하는 구문이란 어떤 문장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의 합이 그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문은 단어와 같은 기호로 독립된 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구문의미가 구문 내부 성분을 결정하는 기체라고 본다.

본고는 말뭉치 자료 분석<sup>6)</sup>을 통해 ‘V+수+A’가 ‘희망’, ‘바람’, ‘목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V+得+A’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에 동작의 결과로서 상태의 정도를 판단하는 ‘V+得+A’ 구문이 있는데, ‘V+수+A’라는 구문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양태보어 구문인 ‘V+得+A’와 변별되는 화용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V+수+A’ 구문도 ‘정도의 윤곽화’ 기능을 담당하는 ‘수’로 인해 새로운 구문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경계가 분명한 개체를 세는 양사를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은 일종의 ‘의도된 통사 파괴(超常搭配, unusual collocation)’를 통한 새로운 구문의미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보편

4) ‘유추(类推, inference)’는 어떤 기호나 구조의 통사적·기능적 변이가 다른 기호나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문법화를 통한 변이는 주로 이러한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다.

5) 정확한 문법화 연구는 통시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시적 측면에서 유추를 통해 가설을 세워보았다.

6) CCL(Center for Chinese Linguistic, 북경대학교 중국언어학 연구센터) 현대중국어 말뭉치, (<http://ccl.pku.edu.cn>)

적 언어 현상의 하나로 별도의 화용적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통사 규칙을 의도적으로 이러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 기제는 일반적으로 诗作에 주로 사용되지만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예를 들어, 卢福波(2011:326)는 정도보어의 색채를 설명하면서 ‘死’, ‘坏’가 보어로 사용될 경우 대체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透’가 정도보어로 쓰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에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 예6) a. 笨死了。(진짜 멍청해.)  
 b. 担心死了。(걱정돼 죽겠네.)  
 c. 累坏了。(너무 피곤해.)  
 d. 忙坏了。(굉장히 바빠.)  
 e. 糟透了。(완전 엉망이야.)  
 f. 坏透了。(아주 나빠.)

위 예의 a~f에서 사용된 보어 ‘死’, ‘坏’, ‘透’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예도 다수 존재한다.

- 예7) a. 可爱死了。  
 (귀여워 죽겠다.)  
 b. 高兴死了。  
 (좋아 죽겠다.)  
 c. 这个故事可把大家笑坏了。  
 (이 이야기로 모두가 웃겨서 쓰러졌다.)  
 d. 孩子们高兴坏了。(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했다.)  
 e. 好了就不用提水,只要一压,水就自己从竹管里流进来, 好透了!  
 (이제 물을 떠올 필요 없어! 누르기만 하면 물은 대나무 관으로 나와, 너무 좋다!)  
 f. 在她的胸旁发现一个很漂亮的小孩子的时候,她简直高兴透了!  
 (그녀의 품에서 예쁜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정말이지 너무 기뻐다.)  
 (CCL)

예7) a~f는 부정적 감정색채를 나타내는 보어 ‘死’와 ‘坏’가 사용되었지만 예6)과는 다르게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통사 규칙에 맞지 않는 발화를 하는 것은 화자의 표현 의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긍정적인 표현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정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 파괴 혹은 유표적 언어는 청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극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도 구비하게 한다. 다시 말해 통사 파괴는 좀 더 효과적이고, 자극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화용적 요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V+수 A’ 구문 역시 의도적인 통사 파괴를 통한 화자의 고유한 발화 의도를 전달하려는 장치라고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V+수 A’ 구문의 의미를 기준으로 한 구성원들의 선택제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1) 수를 통한 정도의 극대화

‘수’는 ‘정도의 윤곽화’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구조조사로 기능이 확장되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언급한바 있다.

- 예8) a. 我有一个本子。(나는 공책 한 권이 있다.)  
 b. 我是个学生。(나는 학생이다.)  
 c. 吃个饱。(배부르게 먹다.)

7) 한국어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너무 예쁘다’, ‘완전 사고 싶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너무’는 지나치라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색채의 단어와는 결합할 수 없으며, ‘완전’은 일부 명사 앞에 놓여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의 명사이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통사 파괴를 통해 극한의 정도성을 표현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된 발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8)의 a는 ‘수량의 윤곽화’이며, b는 ‘속성의 윤곽화’ 기능을 하고 있다. ‘学生’이 갖는 수많은 속성 중 맥락에 의해 결정된 특정한 속성이 1차 윤곽화된 후 주어 ‘我’를 결정짓게 된다. 즉, 다수의 속성 중 문맥에 의해 제한되는 특정한 어떤 속성을 윤곽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직장인 친구에게 식사를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화행이라면 학생이 갖는 ‘경제력 없음’이라는 속성이 윤곽화된 것이고, 아주머니가 지갑이 떨어진 것을 환기시킬 때 쓰이는 호칭인 경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속성이 활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는 ‘수’ 뒤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인데 정도의 윤곽화로 극한의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a~c의 과정을 보면 사물 객체를 윤곽화시키던 ‘수’가 명사가 갖는 특정 속성을 윤곽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형용사 앞에 놓임으로 해서 정도를 윤곽화시킨다고 추론해낼 수 있다. 형용사는 명사와 달리 전형적인 탈경계성 품사이다. 이때 ‘수’는 형용사가 내재한 정도의 스펙트럼에서 경계로 다가가게 된다. 형용사의 경계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 표현이 가능하다.



형용사 ‘饱’의 정도 스펙트럼의 시작점은 ‘饿’의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형용사가 ‘수’를 통해 경계화되기 위해선 도식의 최우측인 ‘1’로 일치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도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 경계선이 존재하는 오른쪽 끝을 통해서만이 ‘수’를 통한 정도의 윤곽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2) 동사의 제한

马庆株(2004)는 ‘V+ 수+ A’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로는 주로 일음절

[+ 의도]<sup>8)</sup>동사이고, 일부 이음절 [+ 의도]동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예9) a. 让对方看个明白。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도록 해!)  
a'. \* 让对方见个明白。

예9)처럼 [+ 의도]동사가 사용될 때는 문장이 성립되지만, ‘见’과 같이 [-의도]동사일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V+ 个+A’ 구문에서 동사의 위치에 [+ 의도]동사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V+ 个+A’의 구문의미가 ‘희망’, ‘바람’, ‘목적’을 나타내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 ‘바람’,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도할 수 있는 동사만 인가되는 것이다.

- 예10) a. 篮里装的全是酒, 先喝个够!  
(바구니 안에 전부 술이야, 일단 실컷 마시자!)  
b. 是不是要喝就喝个痛快?  
(마실 거면 통쾌하게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c. 他都要备上20~30桌丰盛的宴席, 让官兵们吃个饱、喝个好。  
(정부군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20~30개의 연회석을 준비하려고 한다.)

(CCL)

8) [+ 의도]동사는 원문에서는 ‘自主动词’에 대한 번역 술어임을 밝힌다. 의미적으로 동사는 [+ 제어]동사(controllal verb, 可控动词), [-제어]동사(non-controllal verb, 非可控动词)로 나눌 수 있다. [+ 제어]는 [+ 의도]동사(volitional verb, 自主动词)와 [-의도]동사(non-volitional verb, 非自主动词)로 나뉘는데, [+ 의도]동사는 동작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의미하고, [-의도]동사는 제어는 할 수 있지만 무의식중에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제어]는 동작자가 제어할 수 없는 동작이나 행위를 말한다. (袁毓林, 1991:26~27)

[+ 제어] : [+ 의도] (예: 劝, 送, 吃)

[-의도] (예: 跌, 丢, 误, 嫌)

[-제어] : (예: 病, 性, 昏, 长, 吐)

## (3) 형용사의 제한

- 예11) a. 现在终于可以和“好朋友聊个过瘾, 吃个痛快。  
(이제 마침내 친한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 떨고 즐겁게 먹을 수 있겠네.)
- b. 教师们买来大青鱼, 细心地剔去骨头, 让孩子们吃个饱。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큰 청어를 사와서 뼈를 세심하게 발라주었다.)
- c. 把自己的思考、自己的经验与教训都说个明白, 那么有心的读者, 自然会从中发现“完美”的秘诀。  
(자신의 생각, 경험, 교훈을 모두 분명하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완벽’의 비결을 알게 될 거예요.)

(CCL)

- 예11') a'. \* 现在终于可以和“好朋友聊个过瘾, 吃个很痛快。  
b'. \* 教师们买来大青鱼, 细心地剔去骨头, 让孩子们吃个很饱。  
c'. \* 把自己的思考、自己的经验与教训都说个很明白, 那么有心的读者, 自然会从中发现“完美”的秘诀。

‘V+수+A’ 구문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정도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V+수+A’ 구문의미가 ‘정도나 양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경계화되어 특정한 정도를 나타내어야 한다.<sup>9)</sup> 이 때문에 ‘V+수+A’ 구문의 형용사는 세부적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도나 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지 않고 항상 극한의 정도만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출현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고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石毓智(2001:308~312)는 ‘불연속량(discrete, 离散量)’의 의미 특징을 가진 어휘와 ‘연속량(continuous, 持续量)’의 의미 특징을 가진 어휘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연속량’이란 명확한 경계가 있으며 독립적인 개체로 나눌 수 있는 양적 특징을 의미하며, ‘연속량’이란 경계가 모호하며 독립적인 개체로 나눌 수 없는 양적 특징을 가리킨다. 이에 근거해 품사를 분류하면 전형적인 ‘불연속량’ 특징을 가진 품사는 ‘명사’이고, 전형적인 ‘연속량’의 특징을 가진 품사는 ‘형용사’이다. 즉, 형용사는 경계화되지 않는 전형적인 품사인 것이다.

- 예12) a. 大家都將碗里的酒喝个光!  
(모두 그릇에 있는 술을 모조리 마셔라!)
- b. 这里是老子的天下, 今天让我们玩个够!  
(여기는 어른들 세상이니까 오늘 실컷 놀아보자!)
- c. 谢天谢地, 我还以为要把所有房子都看个遍呢!  
(천지신명께 감사드려야겠네, 난 또 모든 집을 다 봐야되는 줄 알 았잖아!)
- (CCL)

예12)에서 쓰인 형용사 ‘光’, ‘够’, ‘遍’은 정도의 스펙트럼이 없는 형용사들이다. 다시 말해, 공통적으로 정도라는 양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 4. 보어 체계에서의 ‘V+个+A’ 위상

일반적으로 ‘V+个+A’ 구문을 보어 체계 속의 유표적이며 예외적 구문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보어 구문이라는 하나의 상위 구문 체계에서 ‘V+个+A’ 구문이 담당하는 기능적 위상을 밝히는 작업은 ‘V+个+A’ 구문의 고유한 기능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고는 보어 체계 속 다른 보어 구문 간 공통점과 차별성 규명을 통해 ‘V+个+A’ 구문이 가지고 있는 변별적인 문법적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1) 정도성 측면

3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V+个+A’ 구문은 극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된 통사 파괴 구문이다.

- 예13) a. 我这顿饭吃得很饱。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 b. 因为炎热, 尤其是因为吃得太饱, 我们无力离席。

(너무 무더워서, 특히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다.)

- c. 他因为吃得非常饱, 所以胆子也就大了。  
(그는 실컷 먹어서 담까지 커졌다.)

예13)은 모두 ‘배가 부르다’는 정도를 정도부사 ‘很’, ‘太’, ‘非常’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양태보어 구문은 배가 어느 정도 부르지에 대해 화자가 정도부사를 통해 정도 스펙트럼에서 특정 정도를 표시하는 구문인 것이다. 반면, ‘V+个+A’ 구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극한의 정도만을 표현할 수 있다.

- 예14) a. 他们正想坐下来吃个饱, 突然一连几声枪响。  
(그들이 막 앉아서 실컷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성이 몇 발 울렸다.)  
b. 等她们回来, 我就去喝个饱。  
(그들이 돌아오면 난 실컷 마시러 갈 거야.)  
c. 我想让你睡个饱, 杜琪安全产下一名可爱的小女婴。  
(너 폭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杜琪는 귀여운 딸을 순산할 거야.)

(CCL)

예14)의 a에서는 배가 부른 정도의 극한을 나타내고 있으며, b 역시 배가 부른 단계의 극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c 역시 충분히 자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정도’나 ‘상당히’, ‘꽤’, ‘아주’가 아닌 극한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V+得+A’와 ‘V+个+A’ 구문이 동일하게 정도를 나타내지만, ‘V+得+A’는 화자가 동작 완료 후 상태에 대해 다양한 정도성을 부여하는 구문이라면 ‘V+个+A’는 동작의 극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구문이라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해 ‘V+得+A’와 ‘V+个+A’ 구문이 동작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기능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구문이 표현하는 정도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갖는다.

## (2) 상적인 측면

李向华(2005)가 ‘V+ 个+ A’에서 ‘个’는 미래상을 나타낸다고 한 것처럼 ‘V+ 个+ A’ 구문은 대체로 [-실현]상을 나타낸다.

- 예15) a. 购物既便利又优惠, 当然要买个够。  
(쇼핑을 하면 편리하고 깎아주기도 하나까 당연히 질리게 사야지.)  
b. 我不在乎, 尽管去笑话吧, 让他们笑个痛快!  
(나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 실컷 웃게 재미있는 얘기해봐!)  
(CCL)

상술한 예문을 보면 a~b 모두 동작 발생 이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의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한 동작행위의 결과에 대한 추측인 것이다. 가능보어 구문 역시 이와 동일한 구문의미를 가지고 있다.

- 예16) a. 这条河深不了, 我们过得去。  
(이 강은 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건너갈 수 있어.)  
b. 这种天下不了雨, 我们会很长时间见不到雨水的。  
(이런 날씨에 비가 올 리 없어, 아마도 오랫동안 비를 보기 어려울걸.)

예16)의 a와 b는 ‘A+ 不+ 了’ 형식의 가능보어 구문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동작의 결과를 추측하고 있다. 가능보어 구문은 경험지식을 기준으로 예측한 동작의 가능성 여부만을 나타내며, [-실현]이라는 구문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는데 반해, ‘V+ 个+ A’ 구문의 경우 종종 [+실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 예17) a. 在沈阳玩个够还不算, 又到辽宁其他主要名胜地游览一番。  
(선양에서 실컷 놀았던 건 치지도 않고, 또 랴오닝성 관광지까지 여행했잖아.)  
b. 他家门前的4000亩草场在六七天之内就被吃个精光。  
(그 집 앞의 4000묘에 달하는 초원을 6~7일 만에 모조리 먹어치웠다.)

(CCL)

예17)의 a는 ‘선양에서 실컷 놀았다’는 [+실현]을 나타내고 있고, b 역시 ‘모조리 먹어버렸다’는 [+실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능보어 구문과 ‘V+个+A’ 구문 모두 [-실현]을 나타내지만, ‘V+个+A’ 구문은 경우에 따라 [-실현]도, [+실현]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보어 구문이 나타내는 구문의 의미와 변별된다.<sup>10)</sup>

### (3) 의도성 측면

앞에서 ‘V+个+A’ 구문의 의미는 ‘희망’, ‘바람’,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 ‘V+得+A’와 달리 [-실현]이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V+个+A’ 구문에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의도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도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문이 바로 ‘把자문’이다.

- 예18) a. 回了家, 晚饭也没有好好吃, 准备晚上去找周榕, **把这件事问个明白**.  
(집에 와서는 저녁도 먹는둥 마는둥 하고, 周榕을 찾아가 이 일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려 한다.)
- b. 至少要求他们**把事情说个清楚**.  
(최소한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 c. 我也找了个角落坐下, 准备**把她看个够**.  
(그를 실컷 보기 위해서 나도 구석 자리를 하나 찾아 앉았다.)

(CCL)

예18)에서 보듯이 ‘V+个+A’ 구문에서 목적어가 필요할 경우 대부분 ‘把자문’의 형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把자문’의 구문의 의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把자문’은 화자가 동작의 대상에 대해 어떤 동작을 가해 모종의 상태변

10) CCL 말뭉치 자료 검색 결과 ‘V+个+A’ 구문은 대체로 [-실현]을 나타내며, [+실현]을 나타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화를 유발시키는데 구문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把자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화자가 동작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결과보어 구문의 구문의미와 겹쳐지는 부분이다.

- 예19) a. 他帶几件內衣到井邊, 在井邊把衣服洗乾淨了。  
(그는 속옷 몇 개를 강가로 가지고 가서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  
b. 媽媽把她的意思說清楚了。  
(어머니는 어머니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CCL)

예19)의 경우 목적어가 있는 결과보어 구문인데 ‘把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문미에 목적어를 위치시켜도 문장이 성립되지만 그럴 경우 화용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Firbas(1992)는 ‘동태적 교류치(動態交際值, degree of communic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CD값’이라고 약칭했다. 의사소통을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볼 때, ‘CD값’은 하나의 언어 성분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역할의 크기나 정도를 의미하는데, ‘CD값’이 가장 높은 성분이 문장에서의 의미 중심, 즉 ‘자연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자연초점’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최우측에 자리한다. 바로 문장의 끝에 출현한 성분의 ‘CD값’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과보어 구문에서 목적어를 문미에 위치시키면 목적어의 ‘CD값’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 즉, 화자가 동작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발화하는 것이다. 반면, ‘把자문’의 경우에는 결과보어의 ‘CD값’이 가장 높아진다. 화자가 동작을 통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V+ ㅅ+A’ 구문과 결과보어 구문 모두 화자의 의도성이 내포된 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V+ ㅅ+A’ 구문과 결과보어 구문의 차이점은 사건의 실현 여부라는 상적 개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결과보어 구문은 양태보어 구문과 동일하게 [+실현]만을 나타내는 반면, ‘V+ ㅅ+A’ 구문은 맥락에 따라 [+실현]과 [-실현]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V+수+A’와 다른 보어를 비교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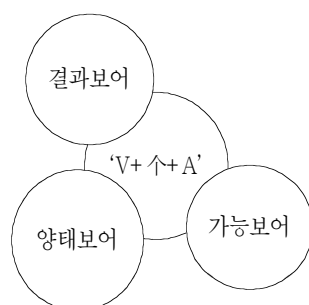


그림1

‘V+수+A’ 구문은 양태보어 구문, 가능보어 구문, 결과보어 구문과 모두 교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V+수+A’ 구문이 가진 독립적인 기능도 있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 5. 결론

본고는 구문문법의 틀을 가지고 ‘V+수+A’ 구문이 갖는 고유의 구문의미와 보어 체계에서 ‘V+수+A’와 다른 보어 구문 간 기능적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다. 우선 ‘V+수+A’에서 사용되는 ‘수’는 원래 양사로서 ‘경계가 뚜렷한 개체’를 세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사 ‘수’의 기능이 은유기제와 유추기제를 통해 ‘V+수+A’ 구문에서 형용사를 경계화시키는 구조조사로 기능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V+수+A’의 구문의미는 구문의 구성 성분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희망’, ‘바람’,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엔 [+의도]동사만 사용 인가되고, 극한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이 불가하며, 형용사 자체가 극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제한 없이 구문 내 사용이 인가되는 것이다.

또한, 'V+ ㅅ+A' 구문의 특징을 다른 보어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V+ ㅅ+A'가 보어 체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았다. 정도성 측면에서는 화자가 동작의 결과의 상태에 대해 다양한 정도를 부여하는 양태 보어 구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V+ ㅅ+A' 구문은 극한의 정도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이 드러난다. 상적인 측면에서는 동작 발생 이전의 상황을 말한다는 점에서 가능보어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V+ ㅅ+A' 구문이 [+실현]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보어 구문과 변별된다. 마지막으로 의도성 측면에서 화자의 의도성이 구문에 내포된다는 점에서 결과보어 구문과 교집합으로 판단되지만, 결과보어 구문은 [+실현]상만을 나타내는데 반해, 'V+ ㅅ+A' 구문은 [-실현]상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과보어 구문과 변별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V+ ㅅ+A' 구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V+ ㅅ+A' 구문과 동일한 명제정보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양태보어 구문인 'V+ 得+A'만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 參考文獻

- 陈丽丽(2007), 「汉语动补结构研究综述」, 『商业文化·科教纵横』
- 姜春华(2005), 「动+个+补结构的句法研究」, 『중어중문학』 제37집
- 马庆柱(2005), 『汉语动词和动补性结构』, 北京大学出版社
- 李向华(2005), 「“我们来喝个痛快”与“雨下个不止”中“个”的性质和关系」, 『宁夏大学学报』第三期
- 龙景科(2010), 「动补语法标记“个”与“得”的比较分析」, 『时代文学』第4期
- 鲁健骥(1998), 「状态补语的句法、语义、语用分析在教学中的应用」,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 陆俭明(2001), 「“VA了”述补结构语义分析补议」, 『汉语学习』第6期
- 祁艳·郑阳春(2006), 「有关“个”的语法研究」, 『内蒙古农业大学学报』第3期
- 曲晓茹(2011), 「动词+个+否定形式的句法·语义特征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70호
- 邵敬敏(1984), 「动+个+形/动结构分析」, 『汉语学习』第2期
- 石毓智·李讷(1998), 「汉语发展史上结构助词的兴替-论“的”语法化过程」, 『中国社会科学』第6期
- 宋玉柱(1993), 「量词“个”和助词“个”」, 『逻辑与语言学习』第6期
- 王立群(2007), 「个:从量词到助词」, 『周口师范学院学报』第24卷第3期
- 袁毓林(1991), 「祈使句式和状态补语的类」, 『汉语学习』第1期
- 张谊生(2003), 「从量词到助词-量词“个”语法化过程的个案分析」, 『当代语言学』第3期
- 张媛(2012), 「“动+个+形”的认知探析-构式语法与认知语法的互动」, 『西安外国语大学学报』第20卷第3期
- 赵元任(1979), 『汉语口语语法』, 商务印书馆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 Adele E. Goldberg(2004[1995]), 손영숙·정주리 옮김,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 Adele E. Goldberg(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irbas, Jan.(199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Construction Meaning of 'V+个+A' in modern Chinese

Park jae-seung, Lee na-hyun

This paper discusses construction meaning of 'V+个+A' from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So fa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whether parts of speech of 个 is quantifier or auxiliary word. However, we report '个' become an auxiliary word through grammaticalization. According to construction grammar, sum of sentence components is not a meaning of sentence. That is one sentence has an independent meaning and components in the sentence can be determined depending on construction meaning. In this paper, we prove our hypothesis that is construction meaning of 'V+个+A' indicates high degree of hope, wish and goal and so on. When 'V+个+A' is used as a verb, the verb is constrained as an autonomous verb in due of construction meaning. Further, when 'V+个+A' is used as adjective, the adjective cannot be modified by a degree adverb. Besides, we study status of 'V+个+A' in a modern Chinese complement construction by compari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other complements.

Key words : 'V+个+A', construction grammar, aspect, complement, construction meaning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